



보험연구원  
Korea Insurance  
Research Institute

# 보도자료

KIM & CHANG

보도

2019. 1. 18(금) 13:30부터

배포

2019. 1. 17(목)

책임자

금융전략실  
정성희 실장(3775-9024)

작성자

최창희 연구위원(3775-9040)

홍보담당

최원 수석연구원(3775-9057)

총 7매

## 보험연구원-김앤장 법률사무소, 「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: 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」 공동 국제심포지엄 개최

- 보험연구원(원장 한기정)과 김앤장 법률사무소(대표변호사 정계성)는 1월 18일 (금) 오후 1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「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: 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」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였음
- 이번 심포지엄은 자본관리 수단으로서 재보험 활용 방안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보험사업 혁신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, 이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
- 김앤장 법률사무소 백재호 변호사는 제1주제 『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: 규제상의 이슈와 방안』 발표를 통해 새로운 국제보험회계 제도(IFRS 17) 및 새로운 보험회사 건전성 규제 제도(K-ICS)의 시행을 앞두고 자본확충의 부담을 안고 있는 보험회사가 재보험을 활용한 자본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
- 스위스재보험서비스의 나딕 상하(Nardeep Sangha) 최고경영책임자는 제2주제 『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: 유럽보험회사의 솔벤시 II 대응 사례』에서 EU의 보험회사 건전성 규제 제도인 솔벤시 II 시행으로 인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비례재보험과 같은 한층

## 복잡한 재보험의 이용 필요성과 실제 적용 사례를 제시함

-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제3주제 『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』에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함
- 일본 AIG 손해보험 빌 장(Bill Zhang) 최고분석책임자(CDAO)는 제4주제 『보험사업 혁신을 위한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경험: AIG 그룹의 사례』에서 AIG의 빅데이터 분석 사례를 소개하고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함
-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리스크 관리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규 시장 개척 및 경영 효율 강화가 시장 성장을 저하, 국제회계기준 및 새로운 재무건전성 규제 도입과 같은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회사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 말함
- 정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및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 모델 이용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보험산업이 혁신의 기회를 찾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함
- 제1세션 패널토론에서는 세종대 이순재 교수(좌장)와 발표자, DB 손해보험 고인철 상무, 순천향대학교 김현수 교수, 금융위원회 하주식 과장, 미국 메트라이프 금융그룹 로버트 바론(Robert Baron) 수석부사장이 참여하여 발표 주제들에 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함
- 제2세션 패널토론에서는 경희대 이봉주 교수(좌장)와 발표자, 신용정보원 박광춘 상무, 보험개발원 이준섭 부원장, 금융감독원 이창욱 국장, 홍익대 정세창 교수가 참여하여 발표 주제들에 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함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〈주제발표 1: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: 규제상의 이슈와 방안〉

김앤장 법률사무소 백재호 변호사

### 공동재보험 등 다양한 재보험 거래를 허용하여 보험회사가 자본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

-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기초로 한 IFRS 17 및 K-ICS의 도입으로 보험회사들의 요구자본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하락이 예상됨
  - 보험회사들은 증자, 후순위채 발행, 이익잉여금 유보, 재보험 등을 통해 새로운 재무건전성 제도에 대비해야 함
  
- 특히, 자본관리 수단으로 전통적 재보험과는 다른 공동재보험과 금융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
  - 재보험사에 위험보험료만을 전가하는 전통적 재보험과는 달리, 공동재보험은 비례재보험 방식으로 원보험계약상 모든 리스크(위험보험료, 저축보험료, 사업비)의 일정 비율을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구조임 - 따라서 원수보험사는 공동재보험을 통해 향후 준비금 변동 부담을 줄일 수 있음
  - 금융재보험은 보험(언더라이팅) 리스크뿐만 아니라 재무적 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형태의 재보험을 의미함
  
- 과거 금융당국은 저축보험료 전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 도입을 발표하였으나, 실무적으로 위험보험료에 대한 출재만을 재보험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양한 재보험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
  -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(IAIS), 미국, EU 솔벤시 II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에서는 보험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전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전통적 재보험 외에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을 허용하고 있음
  
- 향후 국내에서도 외국의 제도 및 실무를 고려해서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임

-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저축보험료에 수반되는 자산운용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동재보험을 통한 리스크 전가가 허용될 필요가 있음
- 금융재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리스크 전가가 명확한 경우 재보험 인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

## 〈주제발표 2: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방안: 유럽 보험회사의 솔벤시 II 대응사례〉

스위스재보험서비스 나딤 상해(Nardeep Sangha) 최고경영책임자

### 재보험을 활용하여 솔벤시 II 도입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 해결

- 솔벤시 II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했지만,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변동성도 증가하였음
  - 자산이 시장가치로 평가되어 시장의 변동성에 완전하게 노출됨
  - 무위험수익률을 기초로 한 할인율이 사용됨
  - 부(負)의 준비금(Negative Reserve)\*이 자본으로 가산됨
    - 보험회사는 보장성 상품과 자산연계(Unit Linked) 상품을 판매하여 솔벤시 II 비율을 높일 수 있음
  - \* 장래 현금유입 현가가 장래 현금유출 현가보다 큰 경우에 발생하는데, 포트폴리오 단위로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보험부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
  - 요구자본이 리스크 요소가 아니라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계산됨
    - 이에 따라 리스크 완화와 요구자본 영향 간에 명확한 연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해짐
- 솔벤시 II하에서 자본확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보험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, 재보험은 주로 포트폴리오 이전, 집중 리스크 감소, 자본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이용될 수 있음

- 재보험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이전은 전략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부(負)의 준비금을 자본화하거나 장기 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여 요구자본을 경감시킬 수 있음
    - Zurich Insurance의 합자회사는 자본 상태를 강화하고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스위스재보험사를 통해 비례재보험을 활용했음
    - 이러한 재보험계약을 통해 스위스재보험사는 변동성이 있는 무형의 급부를 확실성이 있는 현금으로 대체하였고, Zurich Insurance의 합자회사는 요구자본이 감소됨
  - 재보험을 활용한 집중 리스크 감소는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거나 변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음
    - 이러한 사례 중 하나인 장수 리스크 스왑 거래는 장수 트렌드와 저금리가 병합되어 만들어진 변동성을 재보험을 이용하여 확실한 현금흐름으로 바꿈으로써 장기 시장리스크 관리를 용이하게 함
    - 다른 사례인 대량 해약 솔루션은 특히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게 보험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인 대량 해약에 대한 요구자본을 경감시킬 수 있음
  - 스트레스 상황에서 재보험을 활용하면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데, 이 경우 재보험은 특정 사건에 대응하여 작동하는 조건부 솔루션(Contingent Solution)을 이용함
- 규제당국은 재보험 거래의 실질과 범규준수 여부를 상세하게 검토한 후 재보험 거래를 인정하는데, 재보험 거래의 실질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정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
- 첫째, 재보험의 거래 동기와 관련하여 재보험이 지급능력 또는 유동성 개선을 통해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체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춤
  - 둘째, 보험회사가 해당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하는지 여부와 재보험 회사에 충분한 리스크 전가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함
  - 셋째, 운영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재보험 거래의 혜택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살펴봄으로써 보험회사가 재보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

### 〈주제발표 3: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〉

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

#### 개인정보 보호 제도, 빅데이터 생태계, 보험회사 내부 관리 체계 등의 개선 필요

- 보험회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신규시장을 발굴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음
  - 특히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전자 데이터 집적 확대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은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
  - 그러나 긍정적인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능력은 세계 31위로 중국(12위)에도 미치지 못함
  
- 우리나라 보험회사 빅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음
  - 강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로 보험회사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공유 받지 못해 빅데이터 활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임
  - 미흡한 빅데이터 생태계로 인해 분석 전문가가 양성되지 못하고 보험회사는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
  - 복잡한 내부통제절차로 인해 업무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빅데이터 활용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 편중되어 있음
  
- 보험회사와 정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
  -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개선(기관 간 합법적 정보 공유 허용),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, 적극적인 규제샌드박스 활용, 보험회사 내부 빅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

## 〈주제발표 4: 보험사업 혁신을 위한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경험: AIG 그룹의 사례〉

일본 AIG 손해보험 빌 장(Bill Zhang) 최고분석책임자

### 다각적인 빅데이터 활용 방안 모색과 제도적 뒷받침 필요

- 일본 AIG는 데이터 통합, 데이터 거버넌스, 데이터 분석 기반, 업무 과정 최적화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부문에 빅데이터를 활용함
  - AIG는 거버넌스를 이용해 명확한 용어의 정의 사용, 업무의 정확성 향상, 정보 보안 유지, 교육 등의 빅데이터 업무를 수행함
  - AIG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분석도구 시스템 통합을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음
  
- 일본 AIG의 대표적인 빅데이터 활용 사례에는 중소기업 렌즈, 검색 기반 기업 빅데이터 수집, 텔레매틱스, 보험사기 방지 등이 있음
  - 중소기업 렌즈는 AIG가 넓은 지역에 발생한 사고 피해 수준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줌
  - AIG는 검색기반 기업 빅데이터 수집을 마케팅, 계약, 관리, 갱신, 손해사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함
  - 또한 AIG는 빅데이터 분석을 텔레매틱스와 보험사기 적발에 활용하고 있음
  
- 보험회사가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이슈들이 해소될 필요가 있음
  - 특정 집단 차별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, 복잡한 요율 산출방법에 대한 승인 절차 제시,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운영

<http://www.kiri.or.kr>, <http://www.KimChang.com>